

보도자료

2019년 3월 4일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 의 : 운영지원단 인사노무팀 전상래 팀장 (061) 350-1351

배 포 : 운영지원단 총무홍보팀 최혜인 (061) 350-1325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비정규직 직원, 정규직 전환 완료

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이하 KCA, 원장 서석진)은 4일 임용식을 통해 미화, 경비, 시설관리 분야의 용역근로자 66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고 밝혔다.
- KCA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달 15일에 지방본부 16명을 채용하였고, 3월에 본사 17명, 빔마루 방송지원센터(이하 빔마루) 33명을 채용하였다.
- 이번 채용을 위해 KCA는 '17년부터 노·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정규직 전환 대상과 전환방법을 논의해 왔다.
- 이를 통해 '17년 기간제 계약직 7명, '18년 파견직 근로자 50명, 올해 용역근로자 66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.
 - 또한 과기정통부와 문체부의 빔마루 운영기관 단일화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(KOCCA)의 업무가 KCA로 이관되면서 빔마루의 용역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.
- 서석진 KCA 원장은 “비정규직의 전환대상과 전환방식 결정에 있어 노사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, KCA는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